

# 민주 '맥빠진 국감' 왜이러나

## '4대강 사업' 등 현안 송곳 추궁 실종 '전대' 등 동력 분산 쟁점화 실패탓도

민주당 등 야당의 활약이 기대됐던 국정감사가 맥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4대강 사업,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외교부 특채 비리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좀처럼 여권을 코너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중반전에 돌입했지만 이슈와 일정 등을 감안한다면 정국을 흔들만한 사안은 좀처럼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으로 규정하고 일전을 벌였지만 공세의 파괴력이 떨어지면서 쟁점화에 실패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이 이번 국감에서 사실상 정부 통과 의례를 거치며 추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교과위나 의동위 등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데 그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야권의 공세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외부적인 상황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국감 직전에 전당대회를 치르는데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진



국정감사 국민제보 www.minioo.kr

### 민주 신학용의원 조사 반발

했다. 이에 따라, 국감 증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도 국감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들의 무성의와 비협조도 도를 넘고 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물론 국감 직전 자료를 제출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 자료를 갖고 왔다가 위 원장이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채 퇴장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앞으로 정부가 국정감사에 충실하게 응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방향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자료 제출은 불성실을 넘어 아예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야당이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가 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야당의 증인 채택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더욱이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도 해외로 도피시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남은 2주동안 만약 이런 사태가 재발될 때 심각하게 국감 참여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군 기무사가 국정감사 때 천안함 사태 발발 당시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문자정보망 교신내용을 공개하며 군의 인안한 대응을 질타했던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신학용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생각해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집시법·배춧값' 대격돌 예고

## 국감 중반 주도권 잡기 현안 놓고 불꽃공방 펼쳐듯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4대강 사업과 '집시법'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배춧값·전셋값 폭등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국감 이후 전개될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 심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감 초반부터 야당이 전략적으로 4대강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집시법 개정을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김부성 원내대표는 10일 "향후 국감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 검증 특위 설치와 집시법이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당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의 집시법 개정 의지가 굉장히 강경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4대강 검증 특위 요구에 대해서는 "4대강 특위를 하려면

활동의 시기와 범위를 정해야 하고, 공사 중단 여부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용수 확보와 친환경 사업이라는 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주 국감에서는 보와 준설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또 야당이 배춧값 폭등을 4대강 사업에 따른 제방면적 감소와 연계시키고 있는데 대해 여당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적극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농수산물 피해 대책과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국방부, 검찰 등에서 추진 중인 조직개혁 문제, 민간인·정치인 사찰 문제도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여권 내부에서 국감 이후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 검증특위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개헌특위 구성을 연계시키는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국감 브리핑

### 화순광업소 인근 수질오염 심각 현장 조사도 않고 '모르쇠' 일관

화순광업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하는 대한석탄공사가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10일 배포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인근 500m 이내에 위치한 영산강 상류인 화순천 인근 화순군 동암리·성덕리·오동리·구암리·천덕리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광산 갱내에서 발생한 산성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석탄의 이동·적치·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석탄공사 측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갱내 폐수 전량을 폐수처리장을 통해 수질 기준에 맞춰 정화 처리한 후 방류하고 있으며, 비산 먼지를 막기 위해 방진망시설, 스프링클러시설, 세분시설, 집진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석탄공사측이 지난 5월 관행적 산업시찰을 제외하고는 돌이켜 환경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집중호우가 많았던 지난 여름에도 현장조사와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촬영한 화순군 천덕리 앞 화순천이 검게 변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오염된 석탄물로 인근 농민들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며, 전답은 모두 석탄가루 및 석탄 진흙물로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부산항·광양항 동시 기항 컨설팅 부산항 시설사용료 감면 폐지말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동시 기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부산항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0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광양항은 '부산·광양항' 동시기항 선박 항비 면제제도 때문에 광양항이 빠른 기간 내에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며 "광역교통망 구축시(2012년) 또는 광양항 자립형 항만 구축시(2014)까지 항비면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양항은 항비 면제제도 덕분에 지난 2002~2006년(1차) 사이에 55항차에서 72항차로 기항선박이 17항차 증가했고 1년 폐지 후 다시 부활한 2008~2010년(2차) 사이에 64항차에서 71차로 7항차 기항선박이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을 맡겼지만 항비 면제제도를 시행하되 그 이전에 광양항을 관리하는 항만공사가 설립될 경우 설립일까지 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문제는 지난 2006년 말에 1TEU당 2만원의 부산항 컨테이너세가 폐지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광양항은 1년 만에 기항선박이 8항차나 감소했으며 물동량도 개항 이후 최초로 1.9% 줄어든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같은 상임위 소속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광양항이 자립항만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시까지 부산·광양항 동시기항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부산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강운태 광주시장 국감서 직접 업무보고

## 올해부터 피감기관 기관장 보고 방침따라 행안위·법사위원 비엔날레 전시장 방문

오는 20일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직접 업무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가 이번 국감부터는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예전 관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를 준비했던 광주시는 이 같은 행안위 방침을 전제하고 초기에는 반발했으나 다른 피감기관 역시 기관장이 보고에 나선 사실을 확인하고 결국 이를 수용했다.

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 8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강 시장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와 각 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국감 일정과 상관없는 '자투리' 시간을 마련했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감사 당일인 20일 오전 8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각각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았다. 또 15일 광주를 찾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비엔날레 방문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철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조선이공대학

2010년 유망신성학과

## 프랜차이즈 서비스창업교

우리과 특징 5가지

1. 창업실패의 85%는 1년 이하의 준비기간
2. 2년 간의 실무적인 창업준비로 100% 사업성공
3. 20~30대 장사,사업으로 10억 모은 점장,대표 특강
4. 창업스쿨, 알짜상권분석, 커피바리스타 등 실무중심 수업
5. 월수익 1000만원 이상 업소의 성공요인 분석

졸업후 직원 ▶ 매니저 ▶ 점장 ▶ 창업까지

학과카페: **NAVER 카페 bxbx**

재학중 5가지 자격취득 (100%)

외식산업관리사 서비스경영관리사 커피바리스타 유통경영관리사 고객서비스수료증

입학문의 **학과실 (062) 230-8410**  
cafe.naver.com/bxbx

###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

1일 30~40분 운동으로 노후 건강이 보장된다

가죽 30,000원 (택배비 무료)

발목펌프운동은 혈액순환장애에서 시작되는 모든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결시켜 준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은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이 발끝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 되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데서 온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일본인이 최초로 개발한 이 기구는 약을 전혀 먹지 않고 꾸준한 발목펌프운동만으로 각종 질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예방 할 수 있음으로 평생을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운동봉을 빌려 드리오니 실제 체험을 해 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입하시고 효과없으면 반품하세요.

운동방법

1. 누워서 운동봉 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2. 한쪽 다리를 30cm 이상 위로 올렸다 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번갈아 좌, 우 고대로 한다.
3. 이상과 같이 처음에는 하루에 500회, 1,000회를 차차 횟수를 늘여 1일 3,000회 아침 저녁 2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한다.

상담전화 **062-672-2002 / H.P. 010-7510-2000**  
광주 남구 진월동 258-1 2층 제일건강(국민은행 건너편 단컨도너스 2층)

온라인결제 • 광주은행 125-121-002455 • 농협 601154-52-335334 • 예금주: 서영섭

###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껏 소비자가 기다려 왔던 옥상방수 공법!!

친환경 방수·특/허/방/수 (특허 제 10-0562035 호)

##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본사 전속모델 벨런트 이영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의 7가지 특징

1. 방수 뿐 아니라 뛰어난 단열기능 까지 들어있습니다. **디럭스**
2. 보행성이 탁월하고 옥상바닥 소음을 없애줍니다.
3. 이중방수 효과로 견고한 복합방수층을 형성합니다.
4. 시공바닥면의 진행성 크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 열에 강해서 태양열에 의한 변형이 적습니다.
6. 계절과 상관없는 전천후 시공이며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7. 선진국형 친환경 방수 시스템입니다. [특허 제 10-0562035 호]

무명코팅, 무명코팅, 무명코팅, 무명코팅, 무명코팅, 무명코팅, 무명코팅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지사**

홈/매/이/지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목포지사 (061)284-0485 순천지사 (061)726-0482  
여수지사 (061)683-0485 광양지사 (061)795-0485

(062)511-0444, 010.6603.0405